

魏伯珪 「농가」에 관한 研究

任 周 卓*

I. 序 論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는 한국 역사뿐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문학의 담당층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문학이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¹⁾ 기존의 문학적 장르들이 변모, 소멸하거나 서로 다른 장르들이 복합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문학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연시조 장르도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지배적인 장르로서의 생명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²⁾ 魏伯珪(1727~1778)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농가」라는 연시조 작품을 창작하였고, 그 작품 세계는 기존의 연시조가 보여 주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어 주목되는 바, 이 작품은 연시조 장르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질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저의 같은 시기에 丁若鏞(1762~1836)도 「農歌」를 창작하였다. 그의 「農歌」는 연시조의 형식이 아니라 漢詩이고 그 작품 세계도 魏伯珪의 그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魏伯珪의 「농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비교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인이면서 서로 다른 언어체, 서로 다른 양식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농가」 작품의 의미를 좀

* 박사과정(공사 교관)

-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서울: 知識産業社, 1984), pp.150-188 참조.
- 2) 拙稿,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國文學 研究』 94(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90), pp.88-92와 「연시조 발생의 시가사적 의의」, 『현대시조』 여름호(서울: 현대시조사, 1990.7.25), pp.150-167 참조.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³⁾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魏伯珪의 현실 인식과 그 시적 대응 양상 곧 「농가」의 작품 세계를 살피고 이를 동시대인인 丁若鏞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같고 다를 것을 파악함으로써 「농가」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아울러 연시조로서의 「농가」의 시가사적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魏伯珪의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 소개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자료 소개가 논문이 될 수 있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많은 시가 작품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나 소개만 된 채로 산적해 있는 작품이 허다하다. 방법론의 미비로 「농가」 또한 아직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시가 특히 조선 시대의 시가 그 중에서도 「농가」가 취하고 있는 언어의 형식 곧 연시조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이 작품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도 물론이다. 筆者는 이미 연시조의 발생과 그 내적 특성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魏伯珪의 「농가」를 그러한 연시조의 역사 속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魏伯珪의 生涯와 現實 認識

『存齋全書』에 실린 「年譜」와 「行狀」을 근거로 할 때, 魏伯珪는 신분적으로는 長興 지방의 士族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기반은 매우 취약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 주지하다시피, 16세기부터 지방의 향촌 사회는 중소 지주인 사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력 구조는 17세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권력 구조의 중앙에 속한 사족들은 부세의 권리와 촌민 교화의 의무를 지

3) 「농가」는 魏伯珪의 연시조 작품 「농가」를, 「農歌」는 丁若鏞의 漢詩 「農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사용함.

4) 李海澹, 「存齋 魏伯珪 思想의 研究」(서울대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76), pp. 5-30. 魏伯珪의 生涯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 논문을 참조할 것. 여기서는 「농가」의 창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거론함.

니고 있었다.⁵⁾ 그러나, 魏伯珪 당대에 있어 향촌 사회의 권력 구조는 전체적으로 변모되어 지방 사족이 권력 구조의 중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데, 魏伯珪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⁶⁾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응하여 魏伯珪는 長興 지방의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社約을 설치하고 學規, 農規 등을 만들어 문란해진 禮讓의 道를 바로 잡고 淳俗을 기르코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여 失學한 門中子弟들과 奴婢들을 모아서 낮이면 김을 매고 밤이면 글을 읽는” 생활과 “도롱이에 비웃, 농구 등을 갖추어 책을 끼고 다니면서 스스로 논밭을 가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부세의 권리를 상실한 재계 사족이 자신들이 지닌 촌민 교화의 의무를 실행한 한 방법이기도 하다. 권리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도 강제성을 떨 수 없으나 魏伯珪는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일종의 위기 의식이 그의 이러한 행위를 유발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그와 같은 귀족 집단의 구성원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지식인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깨어 있는 지성이 아니고서야 계급적 위기 의식을 감지하기 어려우며 또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魏伯珪의 그러한 교화 의무의 이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해 관계에 얽혔고 따라서 그의 행위에 대해 어떤 해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하느냐는 본고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그의 이러한 생활이 그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으로 그의 현실 인식이 그의 생활의 내용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적 노동과 밀착된 생활로 인하여 魏伯珪는 한편으로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화로운 이상 사회를 꿈꾸며 부정적인 현실을 개혁하는 논리를 펴고 그 실천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政絃新譜」, 「萬言封事」, 「封事」 등은 현실에 대한

5) 金仁杰, 「朝鮮後期 鄕權의 추이와 지배층의 동향」(『韓國文化』2,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81), 「朝鮮後期 鄕村社會 權力構造變動에 대한 試論」(『韓國史論』19, 서울대 國史學科, 1988.8) 참조.

6) 註 4) 참조.

7) 李海濤, 前揭論文, pp.14-15.

그의 비판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와 논리가 분명하게 표현된 글들이다.⁸⁾ 이 가운데서도 특히 「封事」는 「농가」의 현실적 바탕이 되는 당시 농촌 사회의 실상과, 그에 대한 魏伯珪의 인식 내용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는 글이어서 주목된다.

「封事」에서 魏伯珪는 당시 농촌 사회의 폐단을 29가지로 정리하여 지적하고는 그 시정을 주장하였다. 그 중 ‘漕運之弊’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리 고개라서 매우 곤색하고 참혹할 시기에 대민(大民)은 제 집을 저당잡히고 소민(山民)은 그 가족과 이웃을 태워 죽입니다. 사방에는 농부의 노래 [農歌]가 갑자기 끊어지고 한두 집 남아 있는 마을에는 고아들이 다투어 울고 있습니다. 아아, 우리 백성들. 이 어찌된 광경이겠습니까?⁹⁾

인용된 글에는 당대의 현실 사회 곧 魏伯珪가 처한 농촌 사회의 모습이 꺾진하게 표현되어 있다.¹⁰⁾ 특히, “농부의 노래[農歌]가 갑자기 끊어진” 현실은 魏伯珪가 「농가」를 짓게 된 주된 동기로 파악되며, 이는 농촌 사회의 궁핍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방에서 농부의 노래[農歌]가 활기차게 들리는’ 사회가 魏伯珪가 꿈꾸던 이상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보다 있어야 할 것이 진정 소망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 현실은 부정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것인 바, 「농가」는 향촌의 현실 사회에서 실제적인 노동과 밀착된 생활의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당위론적인 세계를 지향하던 魏伯珪의 부정 의식의 시적 표현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의식의 산물인 「농가」의 작품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
- 8) 魏伯珪, 『存齋全書』(影印本)(서울: 景仁文化社, 1976)에 실림. 세 글은 현실 정치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안을 제시한 글임.
 9) 魏伯珪, 「封事」, 『存齋集』卷之二, … 麥窘孔慘之際, 大民典賣其家, 小民焚蕩其族. 四郊之農歌頓絕, 十室之孤孩競號. 噫嘻元元, 此何景色, …
 10) 疏文이 자기의 주장을 펴는 글이어서 다소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Ⅲ. 「농가」의 作品 世界

이전 시대의 연시조 작품들과는 달리 魏伯珪의 「농가」가 지닌 특성이 라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점 이요, 다른 하나는 작품의 공간인 내적 세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1. 「농가」의 言語：民謠的 言語 및 사투리의 受容

「농가」는 여느 연시조 작품과 마찬가지로 표기 상 국문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농가」의 언어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용되는 작품에서와 같이 「농가」의 언어는 한자가 완전히 배제되고 한자어일 경우에도 쓰임에 있어서는 순국문과 마찬가지로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산”, “츠레”, “청풍”, “경”, “계변”, “우배초적”, “순비” 등을 제외 하면 모든 어휘들이 순국어 어휘들이다. 또, “계변(溪邊)”, “우배초적(牛背樵笛)” 이외에는 연시조 작자층이 흔히 사용하던 한자 성어나 사전적 지식(‘教養’이라 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하는 典故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작품이 실린 판각본에는 “朝出”, “適田” 등과 같은, 각 장에 해당하는 소제목이 부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작품 전체의 구성이나 연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농가」의 國文 指向 意識은 「五倫歌」계 연시조의 전통과 닮아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五倫歌」계 연시조는 연시조 창작층이 현실 정치 상의 위기 의식을 느낄 때마다 ‘百姓 教化’의 기치를 앞세우고 창작한 작품들인 바, 그 언어는 ‘교화의 언어’인 국문이었다. 되도록이면 평이한 어휘들을 골라 쓰고 作者와 詩의 話者를 의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마치 교화의 대상이 詩的 主人公이 되어 노래하는 것처럼 창작하는 것이 「五倫歌」계 연시조의 독특한 특성이었다.¹¹⁾ 魏伯珪의 「농가」도 이러한 교화적 기능이 의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농가」의 시적 주인공이 작자인 魏伯珪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데서 기법상에 있어서도 「농가」가 「五倫歌」계 연시조의 전통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

11) 拙稿(1990)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조할 것.

이다. 하지만, 「농가」의 언어들은 ‘人間과 人間 사이의 規範的인 行爲方式’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鄉村 社會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方式’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陶山六曲」이나 「漁父歌」 제 연시조의 전통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다고 할 수 있다.

朝出 서산의 도들벗 셔고 굴음은 느제로 내다
비 뒹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
두어라 츠레지운 날이니 미는다로 미오리라

適田 도롱이에 흙의 걸고 쌀 곱은 검은 쇼 물고
고동풀 쫓머기며 깃물갓 느려갈 제
어더서 품진 벗님 흙희 가자 호는고

耘草 둘러내자 둘러내자 길춘골 둘러내자
바라기 역고룬 골골마다 둘러내자
쉬 짓튼 긴 스래는 마조 잡아 둘러내자

牛憩 썸은 듣는 대로 듯고 벗슨 썰 대로 썸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불 제
어더서 길 가는 소넘니 아는드시 머무는고

點心 핁기에 보리 마오 사발의 공넙치라
내 밥 만홀세요 네 반찬 적글세라
먹은 뒹 홀숨 즘 경이야 네오내오 다홀소나

夕歸 돌라가자 도라가자 히 지거단 도라가자
계변의 손발 싯고 흙의 메고 돌아올 제
어더서 우배 초적이 흙희 가자 비아는고

初秋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일원 벼는 피는 모가 곱는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본이로다
아마도 하늘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야 삼기샷다

嘗新 아히는 낙기길 가고 집 사름은 저리치 친다
새 밥 닉을 싸에 새 술을 걸려서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불 싸여 호흙 제위 호노라

飲社 취하느니 늘그니요 웃는 이 아회로다

흐른 순박 흐린 술을 고개 수저 권홀 새여
 뒤라서 흐르장고 긴 노래로 츠레 춤을 미루는고¹²⁾

「농가」의 언어는, 한편으로는 농부의 일상적인 언어가 침투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가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五倫歌」, 「陶山六曲」, 「漁父歌」 계 연시조의 전통과는 다른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민요가 농부의 일상 언어로 이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 시대 在地士族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시가 형식으로서의 연시조는 국문 시가이면서도 그 언어는 민요적 언어가 아니었다. 그런데, 魏伯珪의 「농가」에서 우리는 민요적 언어의 침투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한 행 안에서 “둘러내자”의 반복이라든가 각 행마다의 동일어구의 반복과 거기에 사용된 어휘들은 민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기법과 어휘들이다. 이러한 민요적 언어의 침투 현상으로 인하여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일원 벼는 피는 모가 꿈는가”와 같이 노래 가사의 整型性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¹³⁾ 魏伯珪 당대의 상황이 민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재지 사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민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모르되 그러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면,¹⁴⁾ 이는 魏伯珪의 현실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封事」에 표현된 魏伯珪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 의식이 ‘농부의 언어’로 이루어진 ‘농부의 노래’의 형식을 수용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요적 언어를 수용하는 것이 곧 민요 담당층의 시대 의식과 감정을 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민요적 언어의 수용 자체는 기존의 연시조 작품들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魏伯珪의 「농가」가 새로운 의식을 꺾진하게 담을 수 있고 또

12) 『三足堂歌帖』에 실린 필사본에는 판각본에서와 같은, 각 장에 부기된 소제 목이 없음. 이 작품은 『存齋全書』(판각본)에 실린 작품임.

13) 물론, 노래 가사의 파괴가 곧 연시조 형식의 파괴는 아니지만 동일한 길이의 악곡형식에서 음량(음보수 혹은 음보량)의 증가는 악곡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4) 조동일, 前掲書, pp. 230-231에서는 당대가 지식인으로서 민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정황론으로서 인간의 주체성 및 지식인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농가」의 또다른 언어적 특성은 표준어 아닌 사투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길촌골”이라든가 “바라기 역고” 등은 전라도 지방[長興, 海南]의 사투리인데, 「농가」에서는 이러한 지방 사투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¹⁵⁾ 이뿐만 아니라, 그 어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몇몇 단어들 가령 “느계”, “깃물갓(긴물갓)” 등도 사투리침투 현상의 결과로 보인다. 연시조 작가층인 재지 사족들은 정계에서 물러난 시기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향촌 사회에서 연시조를 창작하였지만 이들에 의해 창작된 연시조 작품의 언어가 표준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연시조 장르의 언어의 본질적 형태는 표준어라고 단정해도 지나친 정언은 아닐 것이다. 李滉이 詩를 노래부르고자 하려면 “俚俗之語”로 엮어야 한다고 했을 때¹⁶⁾ 그 “俚俗之語”라는 것이 漢文에 대한 朝鮮語 곧 國語를 가리키는 것이었지 사투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가 창작한 「陶山六曲」의 언어가 지방의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 점은 충분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魏伯珪의 「농가」만은 이러한 관습과 전통, 곧 표준어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 표준어 아닌 특정 지방의 사투리를 작품 속에 그대로 수용한 예는 魏伯珪의 「농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인 것이다. 이 또한 魏伯珪의 언어에 대한 의식, 나아가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의 새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 변이 곧 「농가」에서만 나타나는, 기존의 연시조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언어적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당대 언어에 대한 魏伯珪의 의식의 반영이며 나아가서는 그의 사회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대인이면서 그와 유사한 의식을 가졌던, 그리하여 역사 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丁若鏞과는 같고도 다른 모습인데, 魏伯珪의 「농가」가 언어체의 선택 면—새로운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체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丁若鏞의 漢詩 「農歌」보다 한 발 앞

15) 李鏞出, 「魏伯珪의 時調 『農歌』攷」, 『朝鮮大師大論文集』1 (朝鮮大國語教育科, 1970), pp. 45-46.

16) 拙稿(1990), p. 28 참조.

서 나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농가」는 언어체 선택에 있어서는 진일보했으나 그 언어체로써의 시적 형상화에 있어서나 장르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시조 장르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농가」의 성격을 규정지웠고 이것이 곧 이 작품의 시적 형상화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농가」의 內的 特性 : 認識의 變貌와 表現의 限界

「농가」는 아침[朝]에서 저녁[夕]까지,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에 걸친, 시적 주인공인 농부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6장까지는 여름이라는 한 계절 동안의 일을 하루 동안의 일로 치환하여 하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동일한 시간적 진행에 따라 형상화하고 있으며, 7~9장은 가을과 저녁의 생활을 증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朝出’의 제 1행 “서산의 도들벧 서고 굴음을 느껴로 내다”는 하루의 시작 곧 아침을, “비뿔 무근 풀”은 雨季 뒤에 무성해진 잡초가 자라난 계절적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適田’은 하루의 일과인 노동의 시작을 들녘에 나가는 농부의 형상으로써, 盛夏의 계절적 특성인 “도롱이”와 “쌀 곱은 검은 쇼”, “고동풀 뜻머기며” 등 계절적 소재로써 각각 드러내고 있다. ‘耘草’는 “골골마다” 무성해진 “바라기 역고”를 제초하는 농부의 노동의 진행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농번기의 중심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午憩’에 이르면, “썸은 듣는 대로 듯고 벗슨 썰 대로 썩”은 오뉴월의 피약벌 아래에서 근면하게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골골마다” 무성해진 “바라기 역고”와 “쉬 깃튼 긴스래”를 “둘러내”는 노동 과정에서 생긴 땀과 피로를 잠시 식히고 풀기 위하여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훌리 부”는 여유를 가져 보기도 하는 시적 주인공은 “헝기에 보리 밭오 사밭의 콩넉치”로 비록 빈천할지라도 點心을 맛있게 먹은 후에 한숨 잠을 청한다. 노동을 마치고 “계변의 손발 씻고 흙의 메고 돌아”오는 때는 이미 해가 지고 계절은 벌써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일원 벼는 피는 모가고”운 초가을의 문턱[七月]에 들어서고 있다. 이어 노동과 땀의 결실을 맛보기 위해 “아히는 낙기질 가고 집 사름은 저리치 친다”. 嘗新은 본격적인 수확에 앞

서 그 해의 新穀을 미리 맛보는 행위인데, 그 계절적 시기는 이미 팔월 [陰曆]로 접어들었음을 말해 준다. 뒤이어 베풀어지는 조그마한 향연(‘飲社’)은 노동의 목표이자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끝이요 계절적으로는 농번기의 끝인 늦가을을 축제적으로 마무리짓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구성면에 있어서 「농가」는 연시조 장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出에서 夕歸까지, 夕歸에서 한판의 향연이 베풀어지기까지, 농번기의 시작에서 끝까지 쉼이나 삭제의 여지가 없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농가」가 이러한 구성적 특성을 지녔다는 것 자체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 짜여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작품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한계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점, 특히 주제의 형상화에 있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농가」의 한계라는 것이 이전 시대 연시조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계기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농가」가 이전 시대의 연시조 작품과는 주제적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를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五倫歌」계 연시조를 제외한 연시조 작품은 항상 ‘現實社會[政治]：江湖自然’이라는 양분법적 대립을 통해서라야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⁷⁾ 이에 대해 筆者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어부가〉나 〈도산욕곡〉계 연시조에서의 시적 주인공은 이미 강호 자연 속에 머물러 있고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전히 현실 사회에서 道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 갈등은 나아감과 물러남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인물이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시적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그는 세계를 합상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강호 자연 속에서나마 道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물러난 시기의 노래로서의 〈어부가〉와 〈도산욕곡〉에서 시적 주인공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삶의 태도와 방식이다.¹⁸⁾

17) 이러한 틀은 金興奎, 「江湖自然과 政治現實」(『古典詩歌論』, 金學成·權斗煥 編, 서울: 새문사, 1984)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 바, 그 이후 조선 시대 시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8) 拙稿(1990), p.46.

그런데, 魏伯珪의 「농가」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발견할 수 없다. ‘午憩’에서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리 부”는 시적 주인공과 “길 가는 소님”은 대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¹⁹⁾ 그러나, 이 대립이 시적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에서 빚어진 대립이 아니요 연시조 장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분법적인 대립 또한 아니다. 그것은 농사를 위해 땀을 흘리며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과 이를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의 대립일 뿐 이러한 대립이 작품의 전체적인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농가」에서의 자연은 현실 사회와 대립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상으로만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농가」에서의 자연은 “무근 풀”과 “바라기 역고”가 자라는 공간이요 따라서 “뒸는 대로 뒸”고 “골골마다 돌너내”고 “마조 줍아 돌너내”어야 하는 대상일 뿐 거기에 道學的인 의미가 부여된 개념이 아닌 것이다.

「농가」나 「漁父歌」, 「陶山六曲」계 연시조는 ‘鄉村 社會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方式’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漁父歌」나 「陶山六曲」에서의 그 삶의 방식은 ‘江湖 自然을 완상하며 그 自然의 循環 論理에서 眞理 곧 道를 구가하는’ 것이었는데 비하여 「농가」에서의 삶의 방식은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삶에 장애를 일으키는 自然을 克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가」에서의 강호 자연은 ‘逍遙吟詠하면서 道를 구가하는 대상’²⁰⁾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노동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가」는 「漁父歌」나 「陶山六曲」계 연시조의 전통에서 상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변모는 「封事」에서 보여준 魏伯珪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연시조의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르의 진화·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진전이 결과적으로는 연시조의 내적인 변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 조동일, 前揭書, p.277에서 이를 두 세계의 대립으로 보고 있으나, 그 세계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0) 鄭在籍, 『歌辭文學論』(서울: 集文堂, 1982), pp.13-15에서 ‘逍遙’의 의미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이 가운데에서 필자는 “세속적인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道의 높은 경지를 자유로이 노”닌다는 의미로서의 ‘逍遙’란 개념을 사용함.

그런데, 이러한 진전으로 인하여 「농가」는 「封事」에서 보여준 魏伯珪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시적 형상화를 통해 구현하고 있는가?

「封事」에서 魏伯珪는 당대의 현실을 매우 처참하게 표현하였다. 농민이 “제 집을 저당잡히고” “가족과 이웃을 불태워 죽이”며 “고아들이 다 투어 울고 있는” 그런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을 魏伯珪는 “농부의 노래가 잡자기 끊어진” 현실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의식이 「농가」에 반영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의 내용은 감추어지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당위론적인 세계 곧 이상적인 농부의 삶의 형상만이 형상화되고 있다. 나아감과 물러남에서 야기되는 시적 주인공의 내면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연시조 장르의 본질적인 주제였으나, 「농가」에서는 이러한 대립이나 갈등조차 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상적인 농부의 생활상만이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다. 현실의 모순에서 비롯된 비판 의식이나 부정의식이 시적으로 형상화되면서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는 魏伯珪 자신의 시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도 있으나, 연시조 장르 자체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연시조 장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연시조 장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장르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의 인식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시조는 16세기에 발생한 시가 장르이다.²¹⁾ 그 이전 시대 시가와와는 다른 주제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서의 연시조는 “豪俠跌宕”하고 “淫褻敗理”하거나,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한 기존 시가를 비판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주제적 내용을 본질적으로 담을 수 없는 장르였다. 특히, 李滉이 지적한 “玩世不恭”은 연시조의 주제적 내용에서 배제되어야 할 성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연시조 장르에 일관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시조 작품은 시가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許穆이 李龜의 「藏六堂六歌」의 ‘諷刺的 隱遁’을 비호하고 나섰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질

21) 拙稿(1990), pp. 6-40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음.

수 없었고 실제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주제적 내용에 있어서 연시조의 장르적 성격은 발생 시기에 이미 규정지워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魏伯珪가 「농가」를 통해 자신의, 현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의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써 형상화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연시조라는 시가의 형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연시조 「농가」의 한계요 魏伯珪 자신의 의식의 한계인 것이다. 언어체의 선택에 있어 그는 일보 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문학적 형식인 장르 선택에 있어서는 변화된 시대 의식과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시조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魏伯珪 「농가」의 이러한 한계는 丁若鏞 「農歌」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IV. 丁若鏞 「農歌」와의 比較

魏伯珪의 「농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魏伯珪를 丁若鏞과 비교하는 데에는 양자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사성과 상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魏伯珪와 丁若鏞은 이전 시대 문학의 주도적인 담당층인 사대부²²⁾에 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實學者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實學이 이 시대 개혁의 논리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상이었다고 할 때, 이를 주창한 두 인물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시적 대응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진보적인 계기들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魏伯珪와 丁若鏞은 신분적으로나 계급적으로 농민과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가 작품에서 농민과 농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中小地主라는 경제적 기반과 지방의 士族이라는 신분적 배경을 지닌 사대부가 농민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시적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물론, 官職 體驗이라는 면에서 볼 때, 丁若鏞이 흥문관 검열,

22) '士大夫'란 연시조 작자층인 士林系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士林系는 경제적으로는 中小地主이며 신분적으로는 在地士族이다.

시간원 정언, 홍문관 수찬, 병조 참지, 형조 참의 등 중앙 정계에서 여러 관직을 체험하였다는 점²³⁾에서 玉果縣監이라는 지방의 관직에만 잠시 있어 본 魏伯珪²⁴⁾보다 정치적 기반은 굳건하였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丁若鏞이 「農歌」를 지은 시기는 이러한 관직에서 유배된 생활을 한 시기이므로 그의 현실 인식의 문제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한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세째, 魏伯珪와 丁若鏞은 제각기 ‘농부의 노래’인 「농가」 또는 「農歌」²⁶⁾를 지었다는 점이다. 농민이 아닌 이들이 다같이 ‘농부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이들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 그 시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에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창작한 시가 작품 즉 「농가」와 「農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두 작품의 언어체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시적 형상을 통해 드러냄에 있어 魏伯珪가 국문을 표현 매체로 한 데 비해 丁若鏞은 한문을 사용하였다. 魏伯珪가 연시조라는 시가 장르를 선택한 데 비해 丁若鏞은 漢詩의 형식을 선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丁若鏞이 魏伯珪보다 한 세대 정도 이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丁若鏞은 漢詩 「農歌」를 지었고 魏伯珪는 연시조 「농가」를 지은 것이다. 이 차이점은 단순히 개별적인 취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바, 몇 가지 이유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선, 丁若鏞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魏伯珪와는 달랐으리라 짐작해

23) 宋敏那, 「茶山詩研究」(『國文學研究』39, 서울대 國語國文學會, 1977)와 『茶山全集』의 「年譜」에서 丁若鏞의 生涯를 자세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것.

24) 李海濤, 前掲論文 참조.

25) 丁若鏞이 유배 생활을 시작한 것은 1800년 이후의 일이다. 「農歌」도 이 시기에 창작한 작품이므로, 이 시기 丁若鏞의 현실 인식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다. 官職 體験 또한 魏伯珪와 비교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외나하면, 연시조에 있어서 나아가감과 물러남 꿈 進退를 심각하게 고민한 경향이란 것이 시적 형상화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6) 丁若鏞의 漢詩 「農歌」에는 「耽津農歌(8首)」, 「長鬚農歌(10首)」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長鬚農歌」와 비교할 것이다.

볼 수 있다. ‘國文=敎化的 言語, 漢文=自己 表現의 言語’라는 인식의 틀이 견지되고 있었다면 漢詩는 자기 표현의 형식이므로 丁若鏞이 漢詩를 선택한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농민과 농사에 대한 관심을 집요하게 보이고 ‘농부의 언어’로 이루어진 ‘농부의 노래’에 관심을 보여 직접 ‘농부의 노래’를 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丁若鏞이 漢詩로써 「農歌」를 지었다는 것은 그가 농부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가 주창한 ‘朝鮮詩’²⁷⁾란 것도 결국은 자신의 계급적 관점과 세계관에 충실하면서 당대의 조선의 실상을 담는 漢詩를 짓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魏伯珪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농부의 언어를 수용하여 ‘농부의 노래’인 「농가」를 창작하여 되도록이면 ‘농부의 일상’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부분적인 타당성은 인정되나 「農歌」의 언어가 비록 漢詩이긴 하지만 민요적 언어를 되도록이면 수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丁若鏞이 「農歌」를 창작할 즈음에 이미 연시조는 그 담당층의 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연시조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무지하였던 丁若鏞이 자기표현의 언어적 형식으로서 漢詩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歌辭는 이미 내면의 독백 표현에 적합한 장르적 특성을 견지해 나갈 수 없었고 時調는 歌客이나 歌壇에 의해 演戲 위주의 유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문학 장르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새로운 國文詩의 형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 또한 國文 詩歌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심오한 조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언어 형식인 漢詩를 선택했으리라 짐작된다. 丁若鏞이 기존의 시 형식을 차용했다고 해서 「農歌」의 언어가 기존의 漢詩의 언어와 질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용된 어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의 ‘朝鮮詩’ 창작 의지와 민요적 언어에 대한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추론은 앞의 추론보다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

27) 丁若鏞의 ‘朝鮮詩’에 관해서는 宋載邵의 前揭論文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것.

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여러가지 가능태들을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언어체의 선택이라는 점만을 놓고 볼 때에는, 丁若鏞보다 魏伯珪가 한 걸음 진보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 계급의 인식 여하와는 관계없이 현실의 모순의 담지자인 농민의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에 가까운 의식과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농부의 언어’로써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그러면, 「농가」의 언어와 「農歌」의 언어, 「농가」의 시적 형상과 「農歌」의 시적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를 위하여 丁若鏞의 「農歌」 가운데서 「長鬢農歌(10章)」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리 고개* 험하기가 태행산(太行山) 같아
단오결 지나서야 보리 익기 시작하네
(* 4월달 민간의 식생활이 어려운 때를 보리 고개라 함.)

어느 누가 못보리죽 한사발 떠서
주사(籌司) 대감* 댕보라고 바쳐볼 건가
(* 사투리에 宰相을 대감이라 함.)

넘실대는 논물 위에 모내기 노래 애절한데
저 아가*는 유난히도 저렇게 수줍은고
(* 사투리에 新婦를 아가라 함.)
흰 모시 새 적삼에 노란 모시* 긴 치마
장롱 속 겹겹이 싸여 추석날 기다리네
(* 노란 모시는 慶州에서 나는데 치마를 해 입을.)

새벽비 부슬부슬 담배 심기 안성 마춤
담배 모종 옮겨다가 울 밑에 심어두자
금년 봄엔 영양법(英陽法)*을 따로 배워 두었다가
금쪽같은 담배 팔아 일년 동안 살아야지
(* 英陽縣에서 좋은 담배가 남.)

28) 실제 두 작품의 비교에서는 이러한 입론이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漢詩「農歌」가 농민의 의식에 가까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魏伯珪「농가」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 심은 호박에 떡잎 나서 살찌더니
 밤 사이 덩굴 뻗어 사립문에 얽혔어라
 평생에 안 심을 건 맛좋은 수박이라
 관노(官奴)들 물려와서 시비 걸까 걱정이네

새로 간 병아리 작기가 주먹만해
 여리고 노란 털이 어여쁘기 짝이 없네
 그 누가 어린 딸 공밥 먹는다 말하고
 꿈쩍 않고 붙어 앉아 슬개미 쫓는 것을

·어저귀 먼저 베고 삼발에 호미질
 늙은 할멈 속대머리 밤에사 빗질하며
 ·일찍 자는 침지* 영감 발로 차 일으키네
 풍로에 불 붙이고 물레도 고쳐야지
 (* 사투리에 집안의 노인을 尙知라고 부름. 비록 일정한 臟腑은 없으나 벼슬
 이름으로 잘못 불리기도 함.)

삼치 일에 보리밥 싸서
 파, 고추장 섞어 먹세
 금년엔 넘치마져 구하기 어렵구나
 잠는 족족 전어 말려 관청에 바쳤으니

송아지 오이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편 뜰 쉼 옆에 옮겨 매어 두었더니
 날셀 녀 이경(里正)이 와서 코 췌어 물고 가고
 동래(東萊) 하납(下納)* 화물선 이제 막 짐울 실네
 (* 下納이란 영남 지방의 稅米의 반을 日本에 수출한 데서 생긴(이름임.)

앞마당 반을 때어 배추 포기 심었더니
 벌레가 값아 먹어 구멍 송송 뚫어졌네
 훈련대(訓練臺)* 옛 법을 어찌하면 배워다가
 파초같은 배추 잎을 볼 수 있으리
 (* 경성의 배추는 訓練院 밭의 것이 제일 좋음.)

시골진 장독 가에 피어있는 꽃이라곤
 고작해야 맨드라미, 봉선화뿐이로고
 버려진 해류화(海棘花)가 불꽃같이 붉길래

늦은 봄날 옮겨다가 객창(客窓) 밑에 심었다네²⁹⁾

언어체에 있어서 「농가」가 국문인 데 비하여 「農歌」는 漢文이다. 이러한 언어체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였으므로, 각 작품의 언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도록 하자.

「농가」의 언어에 민요적 언어가 침투한 현상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丁若鏞의 「農歌」는 비록 민요적 언어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언어가 樂府體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樂府體가 민요의 수용에서 이뤄지는 漢詩體임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農歌」도 민요적 언어를 수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문이라는 언어체가 민요의 언어체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요적일 수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체의 상이점만을 제외한다면, 「農歌」와 「농가」의 언어는 공통적으로 민요적 언어의 침투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가」가 작품의 배경이 된 지방의 사투리를 수용하였듯이 인용된 작품 「長鬢農歌」에서도 이러한 사투리의 수용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감(大監)”이니 “아가(兒哥)”니 “침지(僉知)”니 하는 어휘들은 한문의 전통과 관습에 익숙한 丁若鏞이 “사투리[方言]에”라는 단서를 붙이고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지방 사투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農歌」의 언어는 「농가」의 언어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사투리의 수용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農歌」의 언어는 擬古性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도 「농가」의 언어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丁若鏞이 “시를 쓰면서 전연 故事나 典故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바람이나 달을 읊으며 바둑이나 술을 노래하며 겨우 韻字나 다는 것은 서너집 되는 村의 고루한 훈장들이 하는 일이다.”³⁰⁾라고 하였으나, 「農歌」에서는 이러한 典故나 故事를 찾아 볼 수 없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 붙어 덧붙인 설명이 典故나 故事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와 설명

29) 宋載邵 譯註, 『若山詩選』(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1), pp. 206-211의 번역을 옮김. 괄호 안은 原註.

30) 金智男, 南晚星 共譯, 『牧民心書 茶山詩選』(서울: 大洋書籍, 1972), p. 240의 번역을 옮김.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然全不用事, 吟風詠月, 譯蒼說酒, 苟能押韻者. 此三家村裏村夫子之詩也. 此後所作, 須以用事… 「寄淵兒」(戊辰冬)

은 한문에 대한 교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典故나 故事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丁若鏞이 「農歌」에서 사용한 사전은 한문학의 전통과 관습의 사전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전이기 때문이다. 「농가」가 이런 故事나 典故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는 있으나, 두 작품이 참조한 사전의 성격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리 고개[麥嶺]”이라든가 “영양법(英陽法)”이라든가 “하납(下納)”, “훈련원(訓練院) 옛 법” 등에 대한 설명은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농민에게 전달되기 위함이 아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어휘들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長鬐 지방에서 그가 습득한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丁若鏞은 이 작품에서만 아니라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은 많은 漢詩 작품에서 “원래 중국 어휘에 있는 말을 굳이 우리말 음에 따라서 바꾸어 놓”거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방의 고유한 방언이기 때문에 다산이 만들어 내”거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 오던 말을 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¹⁾ 「農歌」 언어의 이러한 특성은 「농가」의 언어와 많은 부분 공통된 것이다.

어휘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農歌」가 「농가」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가」에서는 시적 주인공으로서 농부의 농사짓는 노동만이 형상화된 데 비하여 「農歌」에서는 여러 인물과 농민의 세세한 생활의 모습까지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가」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나 궁핍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생활상이 형상화되지 않은 데 비하여 「農歌」에서는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와 궁핍한 생활상이 개입하고 형상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에 안 심을 건 맛좋은 수박이라/관노(官奴)들 몰려와서 시비걸까 걱정이네”라는 구절이라든가 “송아지 오이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서편뜰 씨레 옆에 옮겨 매어 두었더니/날쌔 녀 이정(里正)이 와서 코 꺾어 물고 가고”라는 구절 등에서 官奴와 里正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개입하고 있다. 이는 「농가」와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보리 고개 험하기가 태행산(太行山) 같이”라는 구절은 魏伯珪의 「封事」의 한 부분을 연상케 하지만, 魏伯珪가 이러한 궁핍한 현실을 「농가」를 통해 형상화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丁若鏞은 직접 「農歌」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상

31) 宋載邵 譯註, 前掲書, pp.361-362.

치 앞에 보리 밥 싸서/과, 고추장 섞어 먹세”라는 구절은 「농가」의 “헝귀에 보리 막오 사발의 콩닙치라”라는 구절과 비교되지만, 「농가」에서는 그러한 궁핍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시적 주인공의 심정이 표현되었으나 「農歌」에서는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따지고 있다. “금년엔 넘치마져 구하기 어렵구나/잡는 족족 건어 말려 관청에 바쳤으니”는 그 원인이 官廳에 있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丁若鏞의 「農歌」에서는 궁핍한 농민의 생활상과 里正, 官奴, 官廳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이 형상화되고 있어 주제적 측면에서는 魏伯珪의 「농가」보다 진일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丁若鏞의 말대로 “시대에 대해서 상심하거나 풍속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것”³²⁾은 좋은 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魏伯珪가 이러한 의식을 지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농가」와 「農歌」만을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순된 현실과 농민의 궁핍한 생활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두 사대부 실학자가 그들의 의식을 「농가」 혹은 「農歌」로 형상화함에 있어 丁若鏞은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와 궁핍한 생활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으나 魏伯珪는 농부의 이상적인 생활상을 형상화함으로써 두 작자는 시적 대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작품이 지향하는 讀者의 層位³³⁾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漢詩와 연시조의 장르적 특성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연시조는 모순된 현실과 궁핍한 생활이 진퇴에 있어서의 대립이나 갈등보다 더욱 문제시되

32) 조동일, 前掲書, p.213에서 인용함. 原文은 다음과 같다.

…不傷時價俗, 非詩也. …「寄淵兒」(戊辰冬)

33) 「농가」는 농민층에 가까운 독자층, 「農歌」는 漢文을 알고 漢詩를 이해할 수 있는 독자층을 상정하고 있다. 讀者의 層位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農歌」의 주제적 내용이 오히려 「農歌」가 진보적일 수 있는 것은 ‘國文=教化의 言語/漢文=自己表現의 言語’라는 도식에서 양자가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적 대응 양상이 진보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潛在的인 讀者層의 相異는 앞서 가정해 보았던 언어체의 차이를 가져온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는 시대에 漢詩만큼이나 시대적 변화와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의 생활 감정 등을 형상화해 낼 수 없는 장르였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魏伯珪의 「농가」는 농민의 언어로 발전될 가능성을 지닌 국문이라는 언어체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國文=敎化의 言語'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당대를 감당할 수 없는 연시조를 선택함으로써 그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丁若鏞은 비록 漢文이라는 언어체와 漢詩의 형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현실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丁若鏞의 「農歌」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요적 언어와 민요적 세계를 형상화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漢詩를 표현의 매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의 목소리가 농민적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⁴⁾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유보하기로 한다.

V. 結 論

魏伯珪 「농가」는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의 지식인의 시적 대응 양상을 살핀다는 점에서, 또한 연시조의 내적 변모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론에서 필자는 현실 인식의 시적 형상화 과정, 이전 시대 연시조와의 같고 다름, 丁若鏞 「農歌」와의 비교를 통한 연시조 「농가」의 시적 형상화의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 대상으로써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로써 연시조 장르의 역사적 소멸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가」는 향촌 사회에서 실제적인 노동과 밀착된 생활을 한 魏

34) 漢詩는 丁若鏞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농민의 언어가 될 수 없었고, 丁若鏞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牧民官 곧 地方官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궁핍한 생활의 본질적인 원인이 계급적 토대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伯珪가, 그러한 생활의 체험으로부터 형성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가 지향한 당위론적 세계의 모습을 시적으로 형성화한 작품이다.

둘째, 「농가」는 연시조의 형식이지만, 언어적 측면에서 민요적 언어 및 사투리의 침투 현상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연시조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셋째, ‘향촌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형성화하였다는 점에서 「농가」는 기존의 연시조의 持續이지만 그 형상의 세계에서 시적 주인공이 겪는 進退나 道の 실현에 대한 내면의 대립이나 갈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시조와는 다른 變化이다.

네째, 이러한 變化는 丁若鏞의 「農歌」와 비교하게 되면 일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연시조로서의 「농가」는 漢詩 「農歌」보다도 魏伯珪와 丁若鏞이 다같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모순된 현실과 궁핍한 농민 생활을 꺾진하게 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대응 양상의 차이를 통해 연시조 「농가」의 變化의 모습은 곧 연시조장르의 역사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魏伯珪가 비록 민요적 언어로써 연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그 또한 연시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였다. 연시조 장르는 그 본질적 특성 상, 魏伯珪 당대의 궁핍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없는, 다시 말해 변화된 모순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장르였던 것이다.³⁵⁾ 달리 말하자면, 연시조는 재지 사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굳건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서라야 제 모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시조는 나아감과 물러남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서 자신들의 내면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노래부를 수 있는 장르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대립이나 갈등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없던 시대적 상황에서 魏伯珪가 「농가」를 창작하였지만, 「농가」는

35) 「농가」는 민요적 언어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작품이다. 이로써, 「농가」의 시가사적 위상을 가늠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연시조 장르의 통시대 속에서 그 위상을 가늠하고자 한다.

연시조의 구성적 특성은 유지하되 연시조 장르의 본질적인 주제적 내용을 담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비판적인 목소리조차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시조는 魏伯珪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형상화할 수 있는 시가 형식일 수 없었고 모순된 당대의 현실을 漢詩만큼이나 형상화할 수 없는 장르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魏伯珪의 「농가」는 연시조의 소멸 원인과 그 과정을 충분히 보여준 셈이며, 詩歌史에 있어서 그만큼의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魏伯珪의 「농가」가 보여주었던 연시조의 내적 변모의 양상은 연시조가 변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